

페퍼스, 승리의 기억 '가물가물'

리시브 불안에 공격 범실
'천적' GS칼텍스에 0-3 완패
시즌 16연패 '수렁'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A1페퍼스에 GS칼텍스의 벽은 아직도 높았다.

A1페퍼스는 9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경기에서 GS칼텍스와 맞붙어 패배했다. 세트스코어 0-3(18-25, 15-25, 20-25). 이로써 A1페퍼스는 시즌 16연패를 기록했다.

GS칼텍스는 이날까지 4차례 A1페퍼스와 만나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은 유일한 팀이다. A1페퍼스는 오랜만에 이한비·엘리자벳·박경현·하혜진·최가은·이현 완전체로 출전해 1세트 탈환을 노렸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양팀은 1세트부터 블로킹을 뚫는 강타전으로 팽팽히 맞섰으나, 7-9 상황에서 모마의 묵직한 서브에 2번 연속 서브에이스를 내주며 코너에 몰렸다. A1페퍼스는 리시브가 흔들리며 불을 그쳐 넘겨주는 상황을 반복했다. 블로킹 빈틈을 노리는 모마·강소휘의 공격과 권민지·문명화의 기습 속공에 맥없이 당하며 점수차는 13-20까지 벌어졌다. 이렇다 할 반격을 못 한 A1페퍼스는 18-25까지 끌려가며 1세트를 내줬다.

2세트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박경현과 최가은의 서브에이스에 탄력받아 7-7까지 균형을 맞췄지만, 모마의 내리꽂히는 스파이크에 잇따라 실점하며 점수차가 벌어졌다.

A1페퍼스는 11-17에서 서재원과 박사랑을 투입해 흐름을 바꿔 보려 했지만, 경험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블로킹·디그에 한 발 늦게 반응하는 탓에 실점만 반복하고 좁혀잡 공격 기회를 잡지 못했다. 결국 15-25 큰 차이로 2세트도 패배했다.

3세트는 5-1로 치고나감 서브를 잡았지만, 박은서·최가은의 잇따른 서브·공격범실로 금세 6-5로 따라잡혔다. 최가은과 하혜진의 속공 비중을 늘려 수비를 흔들면, GS칼텍스는 텅 빈 후위 공간을 노려 점수를 뺏아갔다. 결국 11-11에서 강소휘·모마에게 4차례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다시 끌려가는 상황이 됐다. 이후 랠리 끝에 실점을 반복한 A1페퍼스는 결국 20-25까지 점수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엘리자벳이 14득점(공격 성공률 35.9%),



A1페퍼스 라이트 공격수 엘리자벳이 9일 서울장충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전에서 모마의 블로킹을 뚫고 스파이크를 하고 있다. <KOVO 제공>

이한비·박경현은 각각 9득점(33.33%)·8득점(43.75%)을 올렸으나 GS칼텍스 모마(22득점·46.34%)·강소휘(15득점·52%)의 선전에 빛이 바랬다.

리시브 효율은 23.88%를 기록, GS칼텍스

(45.83%)에 비해 크게 밀렸다. GS칼텍스 오지영이 리시브·디그 37회(성공률 72%)로 공격을 봉쇄하는 바람에 공격 성공률도 34.65%로 떨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KIA, 선 놀린 영입 ... 최고 구속 151km 좌완 투수

외국인 선수 구성 마무리

KIA 타이거즈가 좌완 선 놀린(Sean Patrick Nolin·33)으로 2022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했다.

KIA는 9일 미국 뉴욕 시퍼드 출신의 선 놀린과 총액 90만 달러(계약금 25만, 연봉 35만, 옵션 30만)에 계약을 끝냈다.

좌완투수인 선 놀린은 신장 193cm 체중 113kg의 체격을 지니고 있으며 메이저리그에서 4시즌, 마이너리그에서 9시즌을 뛰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18경기에 나와 1승 5패 평균자책점 5.74를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166경기에 출전해 평균자책점 3.48로 41승 29패를 수확했다.

지난 시즌에는 워싱턴 내셔널스에서 10경기에 나와 평균자책점 4.39를 기록했다. 앞서 2020년에는 일본 프로야구(NPB) 세이부 라이온스에서 뛰면서 세밀한 아시아 야구도 경험했다.

선 놀린은 최고 151km, 평균 147km의 직구를 바탕으로 체인업, 커터, 커브 등을 구사하면서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게 장점이다.

또 선발투수로 풍부한 경험을 갖춘데다 위기 관리 능력이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KIA는 선 놀린과 계약하면서 올 시즌을 함께 할 '외국인 선수 3인방'을 모두 새 얼굴로 꾸렸다.

앞서 KIA는 3시즌을 함께 했던 프레스턴 터커와의 동행을 마무리하고,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외야수 소크라테스 브리토(Socrates Brito·29)로 외야 한자리를 채웠다.

또 보 다카하시를 대신해 미국 출신의 오른손 투수 로니 윌리엄스(Ronnie Williams·우투우타·25)를 영입했다.

다aniel 멤덴과의 재계약 여부가 관심사가 됐지만 KIA는 새로운 좌완 투수로 마지막 퍼즐을 완



KIA 새 외국인 투수 선 놀린이 계약서에 사인을 끝낸 뒤 부인, 아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성하면서, 외국인 선수를 전원 교체했다. KIA는 지난 시즌 '에이스' 애런 브룩스와 함께 터커, 멤덴을 앞세워 기대감 속에 시즌을 열었다.

하지만 브룩스와 멤덴이 부상으로 동시에 자리에서 이탈하면서 선발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브룩스가 부상 복귀 후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7월 연승을 이끌었지만, 대마초 성분이 든 자담배를 반입하려다 적발되면서 임의탈퇴 되기도 했다. KIA가 브룩스를 대신해 '육성형 외국인 투수' 다카하시를 영입한 데 이어, 멤덴이 시즌 막판 뒤늦게 실력 발휘에 나섰지만 시즌은 9위로 마무리됐다.

터커의 변신도 실패했다. 터커는 2020시즌 32

홈런·113타점·110득점을 기록하며 구단 최초 '30홈런-100타점-100득점'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지만, 1루수 변신을 준비했던 2021시즌에는 9 홈런·59타점·42득점에 그치면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감독, 대표이사, 단장을 모두 교체하면서 새로운 판을 짠 KIA는 외국인 선수도 모두 교체하면서 새 출발선에 섰다.

또 KIA는 선 놀린의 가세로 우여곡절 FA로 팀에 복귀한 양현종과 지난해 국가대표 에이스로도 주목받은 '슈퍼루키' 이의리까지 3명의 좌완투수로 선발진을 구성하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문상윤·김경민·이건희 영입



광주FC가 전력 보강을 위해 영입한 문상윤(왼쪽부터), 김경민, 이견희. <광주FC 제공>

광주FC가 전력보강을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광주가 서울이랜드에서 골키퍼 김경민(30)과 공격수 이견희(23)를 영입했다. 또 자유계약으로 베테랑 미드필더 문상윤(30)도 불러들였다.

광주는 9일 서울이랜드와 윤보상과 김경민을 바꾸는 '골키퍼 트레이드'를 발표했다. 이견희는 1년간 임대영입했다.

190cm·78kg의 김경민은 뛰어난 반사신경을 바탕으로 1대1 방어가 장점이다. 또 정확한 킥으로 공격 전개 시 빌드업과 역습 상황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한양대 재학시절 연령별 대표팀과 2011 심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표를 지낸 그는 2014년 신인 자유계약으로 제주에서 프로에 데뷔했다. 이후 부산을 거쳐 2021년 서울이랜드로 이적, 34경기에 나와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다.

김경민은 "고향인 여수인만큼 지역 팬들의 응원을 받는 게 기뻐요. 그 꿈을 이루게 해준 광주에게 감사하다. 광주는 강등당했지만 승격도 2번이 아닌 팀이다. 동료들과 세 번째 승격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186cm·78kg의 탄탄한 피지컬을 갖춘 이견희는 포스트플레이와 헤더, 날카로운 결정력이 장점인 스트라이커다.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방 압박에서 장점을 보이며 빠른 스피드와 돌파로 팀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평가다.

이견희는 서울 보인고 시절인 2016 전반기 고등학교 왕왕왕전 득점왕에 오르며 팀을 우승으로 이

끌었고, 한양대에서는 2019 U리그 4관왕 득점왕을 차지했다. 이후 2020시즌 서울이랜드에서 프로에 데뷔해 14경기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이견희는 "광주의 경기를 보면서 정말 탄탄한 조직력을 지녔다는 느낌을 받았다. 광주에서의 생활이 기대된다. 임대생이라고 소홀하게 하지 않고 나와 팀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시즌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는 앞서 인천, 제주, 성남 등에서 활약한 11년 차 베테랑 문상윤을 자유계약으로 영입해 경험도 더했다.

179cm·70kg의 문상윤은 날카로운 왼발킥을 보유한 공격형 미드필더로 탈압박, 경기 조율 능력이 뛰어나다.

인천 대건고와 아주대를 거쳐 2012년 우선지명으로 인천에 입단, 데뷔 첫해 26경기에 나와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연령별 대표팀에서 12경기를 소화한 문상윤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문상윤은 전북과 제주를 거쳐 2018년 성남으로 팀을 옮겼고 당시 수석코치였던 광주 이정호 감독과 두 시즌 동안 호흡을 맞췄다. 이후 서울이랜드로 이적해 통산 198경기 16골 21도움을 기록했다.

문상윤은 "이정호 감독님이 나를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베테랑으로서 무거운 짐을 느낀다. 감독님과 성남에서 승격 및 1부리그 잔류를 이뤄낸 바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팀의 승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 최희원·이규혁·최정원 영입



전남이 새로 영입한 수비수 최희원(왼쪽부터), 이규혁, 최정원. <전남드래곤즈 제공>

전남드래곤즈가 '로컬보이' 최희원을 불러들이는 등 수비 강화를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남이 지난 7일 전북현대에서 중앙수비수 최희원을 영입했다. 전남은 앞서 측면 수비수 이규혁과 중앙 수비수 최정원을 각각 제주와 수원에서 영입해 '잔물 수비'의 농도를 더했다.

순천 출신인 최희원은 순천중앙초와 강진중을 거쳐 전북현대 U18팀인 전주 영생고에서 활약한 '로컬보이'다.

연령별 대표팀을 지낸 그는 중앙대 재학 중이던 2020년 우선지명으로 전북 유니폼을 입었다. 입단 첫해 성남FC로 임대를 다녀왔고 지난해 전북에 복귀, 3경기를 뛰었다.

최희원은 185cm, 78kg의 건장한 체격으로 제공권이 뛰어난 왼발잡이 센터백이다. 장신 선수지만 빠른 발로 왼쪽 풀백까지 가능한 자원이자.

최희원은 "고향인 전남에 돌아오게 되어 영광스럽다. 어린 시절 경기를 보러 부모님을 따라왔던 추억이 많은 경기장에서 땀 생각을 하니 설렌다. 팀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잘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이규혁은 2018 AFC U-19 챔피언십 준우승, 2019 FIFA U-20 월드컵 준우승에 기여하는 등 꾸준히 연령별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왼발잡이 풀백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2022 U-23 아시안컵 예선에서는 적극적인 공격기담으로 1득점 1도움도 기록했다.

2019년 제주 유니폼을 입은 이규혁은 2020년 15경기에 나와 2도움을 올렸고, 지난 여름 충남아

산으로 임대를 떠나 11경기(1도움)에 출장했다. 많은 활동량을 자랑하는 이규혁은 사이트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오버래프 후 문전에서 결정이 뛰어난 선수다. 공격적인 능력도 갖춘 만큼 원으로도 역할이 가능하다.

이규혁은 "전남에 오게 되어 기쁘다. 올해 경기도 많고 리그 우승과 ACL에서의 좋은 성적 등이 이뤄질 게 많은데, 팀과 개인의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눈이 즐거운 축구, 팬들의 가슴이 뛰게 하는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리한 플레이가 돋보이는 최정원은 빌드업과 드리블에 장점을 가진 왼발잡이 중앙수비수이다. 특히 최후방에서 전방이나 좌우로 열어주는 패스가 뛰어나 공격의 활로가 될 전망이다. 186cm의 큰 키와 단단한 체격을 활용한 제공권과 수비 능력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최정원은 건국대 재학 중이던 2017년 텐스컵 한국대표팀 주장을 맡아 대회 MVP까지 수상했다. 당시 활약을 바탕으로 일본 J2리그의 파지야노 오카야마로 진출해 3년간 48경기에 나섰다.

지난해 수원으로 이적해 K리그 무대를 밟은 그는 최후방을 지키는 스니퍼 역할을 하며 뒷공간 커버, 빌드업과 팀포 조절을 담당했다. 리그 19경기, FA컵 3경기 등 총 22경기에 출전했다.

최정원은 "전남에 오게 돼 영광이고 감사하다. 제가 가진 장점들을 활용해서 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싶고, 팀의 목표인 K리그 승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